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제 목	: [보도자료]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날 짜	: 2019년 12월 9일
문 의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hrcomm2017@gmail.com

1.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948년 12월 10일, 전쟁의 참상을 겪은 인류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로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되었습니다. 매년 세계인권선언일마다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인권현실을 드러내왔습니다.
3. 세계인권선언일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또 다른 날로 기억되게 됐습니다. 12월 10일 내일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기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에서 매년 2천 명의 또다른 '김용균'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를 자임하는 정치 세력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회피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나중으로 밀어내거나 삭제하려고 합니다.
5.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저항으로부터 인권의 역사는 만들어져왔습니다. 인권은 억압과 착취,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말이며 힘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201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인권단체 논평을 발표합니다.

[첨부]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아직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 기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라는 범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된다. 매년 2천 명의 또 다른 ‘김용균’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라, ‘일하다 죽지 않게’ 라는 참담한 외침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삶을 무너뜨린 노조파괴 기업 삼성의 책임을 요구하며 200일의 시간을 강남역 사거리 CCTV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김용희 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에 맞선 투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함께’라는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국회 앞에서는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외침이 이어졌다. 수년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 성평등,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수많은 제도들이 공격받거나 폐지되었다. 이는 소수 혐오선동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 자임하는 정치 세력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발생한 문제다.

억압과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힘에 맞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 역시 쌓여가고 있다. 존재를 삭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혐오 선동에 맞서는 대항적인 말하기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왔다.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모욕적인 제도를 거부하며 권리를 선언하는 장애/빈곤 당사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71번째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은 선언문 안에 간혀있는 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어야 한다. 일하다 죽는 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는 세상을 바꾸는 저항의 언어로 인권을 외치자.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유롭

고 평등하며 존엄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인권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생명안전시민넷,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쟁쟁,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대체, 이하 단체명)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